

오전(1부, 노랑진) 6시
 주일예배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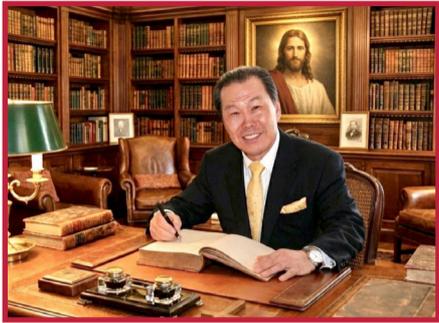


1부(오전) 7시
 주일예배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6년 3월 15일 (제 1349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충성(忠誠)된 자를 써라

봄이 왔다. 봄이 되면 농부는 논밭으로 향한다. 겨우내 얼어 굳은 땅을 뒤집고 씨를 뿌리기 위함이다. 농부는 엄선된 좋은 씨를 뿌린다.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많이 거두기 때문이다.

사람을 쓰는 일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되기에 좋은 사람을 써야 한다.

좋은 사람은 충성된 자다. 예수님은 일을 잘하는 자에게 '능력 있는 종아!'라고 칭찬하신 적이 없다. 항상 '충성된 자'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25장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로 배가튼 이룬 자에게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셨다. 그렇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도다. 사도 바울도 말한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2:2).

충성이 무엇일까? 충성(忠誠)은 충성할 충(忠)에 정성 성(誠)으로 이루어져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 충성이다. 그래서 충성된 자의 특성을 보면, 첫째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비록 한 달란트만 받았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 사람은 자고로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 그래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고 말씀하셨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다. 보디발의 집안일을 할 때나 애굽의 총리대신으로 일할 때나 똑같이 충성되게 일했다. 그렇게 일하는 충성된 자는 대충 일하지 않는다. 대충은 삶의 암적인 존재인지라 대충으로 인해 불량품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 모두가 공멸하기 때문이다. 또한 충성된 자는 '아니오'가 없다. 오직 주군의 뜻에 '예' 할 뿐이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가져다주려는 주인의 말에 '예' 했던 하인들처럼.

성경에는 충성된 자들의 계보가 있다. 모세와 여호수아, 베드로,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나와 여러분까지! 이 계보를 따라 하늘나라는 지금도 확장되고 있다. 우리, 충성된 자란 칭찬을 듣고 인생을 마감하자!

우리, 오늘만이라도 부르짖어 기도하자

세계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최근 강대국 대결로 치닫고 있는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은 마치 폭주 기관차가 같은 레일 위에서 서로 마주 보고 달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3년 전 촉발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여전한 가운데 다시 중동지역까지, 그야말로 지구촌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그릇된 결정이 자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와 상처를 입히는지 우리는 두 전쟁을 통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들에게 애매하게 죽어 나가는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2차 대전 이후 자리 잡은 국제질서나 국제 규약,

국제질서는 새로운 질서의 재편을 위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비록 지난 세기 초에는 우리가 힘이 없어 제국주의 세력에 휘둘리며 비극의 역사를 살아야 했지만, 이제 오늘의 대한민국은 능동적으로 세계 질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숱한 오욕의 역사를 지나면서도 오늘의 자랑스러운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단이 지속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믿는 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최후통첩을 받은 히스기야는 즉시로 면벽하고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더니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역울함을 풀기 위해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갔던 과부나 보리떡을 강청했던 자, 감옥에 갇힌 베드로 사도의 구명을 위해 부르짖어 합심기도했던 성도들, 모두가 크고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어디 성경이 기록된 인물들 뿐이겠습니까? 내 목회 41년에 수많은 기사와 표적들, 심지어 간이 90%가 굳었다는 판정을 받았던 내가 오늘날 건강한 40대의 기력으로 뛰고 있는 것 역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

습관이 운명을 좌우한다 나쁜 습관을 짚어내라

봉우 이초석 목사

습관이 생각보다 빠르다

규범 등이 이제는 그 효력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전후 국제질서의 버팀목이 되어 왔던 미국 주도의 유엔과 나토체제에 심각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하고, 우리가 튼튼해야 합니다. 핵도발의 위협성을 늘 안고 살아가는 우리나라에는 더욱 엄혹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기 초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던 우리나라는 반세기를 고통과 참화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계는 급변 정도가 아니라 지각변동 차원의 대변혁을 맞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가장 커다란 변혁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고, 파괴 수준의

목사님은 요즘 유독 기도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난제들을 해결 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에게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크고 놀라운 비밀의 길로 응답 하리라(렘33:3)!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넌 애를 가질 수 없어!' 했던 한나가 부르짖어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유다 전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여 유다 전 민족을 구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죽을 준비나 하라는 하나님의

도하지 못하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나는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고,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것만은 내가 목숨 걸고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습관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나 역시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저녁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습관 따라 기도해봅시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육체가 강건해집니다. 우리, 오늘만이라도 부르짖어 기도해봅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한은택 목사

미국 캔자스시티 목회자 세미나

* 날짜 : 3월 25일(수)~4월 3일(금)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25:14~30)



부지런이 주는 선물은 부귀영화다

가난을 선물로 받고 싶습니까? 부귀를 선물로 받고 싶습니까? 설마 가난을 선물 받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요? 당연히 부귀를 받아야죠.

그렇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귀는 부지런이 가져다주는 선물이거든요. 이젠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잠 10:4),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잠12:27).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잠13:4).

부지런한 농부의 전답에는 잡초가 없다

성경 말씀이 아니더라도, 저는 80 가까이 살면서 게으른 자가 잘 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셨는데, 일손이 모자라 건넌 마을 사람을 불러오라고 해서 가보면, 해가 중천에 뿔는데 아저씨, 아주머니가 제가 부르는 소리에 겨우 이부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 말인즉 전답이 없으니 할 일이 없어 누워있다고 하지만, 그건 핑계입니다. 게으르니까 일이 없는 것이고, 일이 없으니 돈이 없어 논밭을 못사는 것입니다. 논밭이 없으니 더욱 부지런히 남의 집 일이라도 해서 한 평, 두 평씩 땅을 사야지요. 부르러 갈 때까지 있을 게 아니라 먼저 ‘일 있습니까?’ 물어야죠. 자고로 게으른 자들은 핑계를 잘 댓니다. 성경도 그들을 간파해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쩌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느니라”(잠 26:13~14).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자가 나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돈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둘 다 부지런히 장사한 겁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것을 묻어뒀습니다. 게으름을 피운 거지요. 그리고는 주인이 와서 회계하자 핑계를 댓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마 25:24~25).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

깎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이 있으리라”(마25:26~30). 파나소닉의 창시자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3무(三無), 즉 약하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었지만,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건강도, 학력도, 재산도 없었다. 그래서 누구보다 부지런히 노력할 수밖에 없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에게 기자가 “성공의 비결이 뭘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글쎄요, 굳이 말한다면 나는 매일 네 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것 외에 내세울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대 신화를 쓴 정주영 회장, 그는 쌀가게 시절부터 새벽 3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해가 빨리 뜨지 않는다고 역정을 냈으며, 7시면 회사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임원만 봐도 새벽같이 출근해서 회의합니다.

성경의 인물도 살펴볼까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등하는 가운데서도 새벽에 일어나 모리아 산을 찾았고, 야곱 역시 외삼촌 집에 가서 일할 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창31:40). 엘리야도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했음을 시인했고(왕상19:10), 엘리사도 부름을 받을 때에 부지런히 일하던 종이었습니다(왕상19:19). 다윗 역시 주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이른 새벽에 일어났습니다(시 119:148). 사도 바울의 사역도 기도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지런함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형

제들이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살전2:9).

여러분, 게으름은 모든 죄악의 근본입니다. 죄는 나를 해치는 것이요, 악은 남을 해치는 것 아닙니까. 게으르면 우선 내가 매사에 무력해지고, 의욕도 없어 결국 가난하게 됩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느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잠21:25).

게으름이 내 삶만 피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앞길도 막고 망치게 합니다. 성경 말 씀 입니다. “ 게으른 자

를 보태시고, 돕는 자를 보내시고,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행운도, 축복도 부지런히 찾고 두드리는 자의 친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부지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을 거라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과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만물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줄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시121:4),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사9:7). 예수님은요? 당연히 부지런하셨지요.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고(막1:35), 낮에는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시느라 식사할 틈조차 없으셨습니다(막6:31).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도 부지런하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히 구하고”(욘8:5), “부지런히 살피며”(잠27:23), “부지런히 찾고”(잠1:28),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신 6:7), “부지런히 배우고”(딤후3:14), “부지런히 기도하고”(엡6:18), “부지런히 주를 섬기라”(롬12:11).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요 지혜로운 자는 부지런한 자다

저는 게으른 자는 미련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르면 분명히 가난하게 되고(잠10:4),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잠10:26), 남의 부림을 당할 것이고(잠12:24), 어려움이 많을 것이며(잠 15:19), 구걸해도 얻지 못할 것이고(잠 20:4), 패가망신을 할 것이며(잠18:9), 굶주릴 것이고(잠19:15), 쇠퇴할 뿐더러(전 10:18),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을 알면서도(마25:26~30) 그것을 퇴치하지 못하고 끼고 앉아 있으니 미련하다 할밖에요. 이는 수령을 보고도 수령에 빠지는 격이지 않습니까? 불인 줄 알면서 뛰어드는 나방이나 뭐가 다릅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잠26:1).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잠 18:9).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단언컨대 패가하게 되고,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2026년, 우리 부지런히 운동해서 건강하고,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노력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며, 부지런히 기도해서 응답 받고, 부지런히 주의 일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오늘의 메시지 ::

기회비용 관점과 투자 선택

“최고로 꼽히는 맨큐의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현명한 사람들은 기회비용에 기초해 결정한다고 했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진 대안들이다. 우리의 모든 결정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찰리 멩거가 말한 바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우리는 현명하게 자본을 배분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자본에는 제한이 있고, 여러 대안이 있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발생합니다. 기회비용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하는 차선의 기회가 가진 가치로 정의됩니다.

멍거의 말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점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 주식에서 다른 주식들로의 달성할 수 없는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면, 다른 주식들에 계속 자본을 배분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훨씬 나은 다른 수익 기회가 나타날 때까지 수익성 높은 그 주식에 전액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자주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높은 기준수익률을 굳게 유지하는 대신 새로운 투자에 대해 자신의 기준을 완화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준수익률은 높게 유지해야 하지요. 버핏도 고백한 부작위의 실수(mistakes of omission)란 우리가 투자할 유망한 기업을 찾았는데 실제로 투자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는 소탐대실하여 행동하지 못해 큰 기회비용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

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직접 비용이 기회비용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며, 포기한 기회는 그런 직접비용이 아니기에 경시하지요. 그러나 장기투자자들의 경우, 양질의 기업에 높은 가격 지불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종종 큰 기회비용을 수반합니다.

불확실성에서 훨씬 큰 예상수익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확실성’을 택하는 것이 항상 더 좋습니다. 그것은 포트폴리오에 어떤 새로운 종목을 추가하려면, 그 새 종목이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보다 ‘상당히 더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투자는 미래에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 현재의 만족을 지연하는 것이기에 이처럼 투자의 중심에는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모두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일상적인 결정의 기회비용을 중시하라는 것이지요.

더 적극적인 방법은 자신의 돈 버는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지출을 줄이면 경제적 자유에 도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지만 한계가 있죠. 그러나 벌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는 우리 자신에게 투자하는 일입니다.

올해 “내가 서있는 땅부터 기쁨지게 해보자!”라는 엄청난 말씀을 받았습니.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시간을 투자하여 하나님께 준비된 축복을 마음껏 찾아 쓰시길 소망합니다.

이미경 권사

:: 깊은 곳에서의 울림 ::

듣고 깨닫는 자의 축복

어느 날, 제가 잘 아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의 꿈에 한 청년이 보였다고 합니다. 사업에 성공해 단상에서 간증하던 그는, 복 받은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새 사람들을 비판했습니다. 간증이 끝난 뒤 한 성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간증에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그 꿈을 마음에 두고 기도하다가 감동이 와서 청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꿈 이야기를 전하며, 평소 그를 보며 염려하던 부분도 조심스레 나누었다고 합니다. 몇 주 뒤 청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 그분의 말을 들은 후 자신을 깊이 돌아보았고, 기도하던 중 불현듯 총회장 목사님의 ‘빨간관 잠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라.”

그 순간 청년은 ‘아, 내가 색안경을 끼고 내 잣대로 사람을 판단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눈물로 회개 기도를 드린 뒤로 그는 사람을 대할 때 겉모습에 머물지 않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의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던 불편함은 사라지고 기쁨이 샘솟았다고 합니다. 이해되지 않던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

기 시작했다는 고백도 덧붙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해주신 그 조언이,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졌습니다.”라며 고마움을 거듭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노랑진 기도회에 매일 참석하시는 어느 집사님을 통해, 총회장 목사님께 늘 기도를 받는 한 자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집사님이 보기에는 그 자매가 장애로 인해 일상적인 소통이 쉽지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총회장 목사님께서 그 자매를 늘 반갑게 맞이하시며 매번 다른 인사로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이야~ 너 오늘 멋있다!”, “너도 할 수 있어!”, “오늘 말씀은 네 말씀이야!”

그 칭찬과 격려를 들을 때마다 자매의 얼굴에 꽃이 피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성도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목사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목사님을 본받아야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듣고 깨닫는 사람에게는 변화의 축복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배우며, 목사님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김진실 사모

행복과 불행의 차이

목사님이 결혼식 주례하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다. “너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남편은 아내를 다른 여자와 비교하지 말고, 아내도 남편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는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 경차를 타면서 고급차를 보며 상대적 빈곤을 느낀다면 그것은 불행이다. 20평에 살면서 50평 사는 걸 보며 스스로 가난하다 하는 사람 역시 불행할 수밖에 없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자신의 형편을 비관했으나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은 것은, 악인의 형통은 꿈은 깨 후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장춘몽임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기록한다(시73편). 솔로몬 역시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정녕히 장래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권면한다(잠23:17~18).

내 자녀를 남의 자녀와 비교하며, ‘넌 왜 이 모양이야?’하고 책망한다면 그 자녀는 자존감이 무너져 절대 행복할 수 없다.

‘부러워하면 지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내게 없는 것을 보고, 남이 가진 것만 보며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늘 불행한 인생이 될 것이다.

반면에 행복한 인생은 내 가진 것에 감사하고, 내게 있는 것이 최고임을 알아 스스로 만족하는 데 있다. 내 남편이 최고요, 내 아내가 최고요, 내 자녀가 최고요, 내 교회가 최고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요...

우리 이제 비교의식 속에 불행한 삶을 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은 감사의 고백이 넘칠 때 감사의 조건 역시 넘치게 채워주실 것이다!

김상욱 목사



:: 생명의 말씀 ::

복 있는 자는 깨어 있는 자다

사람들은 복을 소유로 판단한다.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얼마나 인정받는가가 복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영의 상태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며, 같은 밭에 있는 두 사람 중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질 것이라 하셨다. 같은 장소, 같은 환경,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다르다. 그 차이는 깨어 있음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자와 잠든 자의 차이가 결국 인생의 결론을 가른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신다. 그러므로 복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성경은 복을 결과로 말씀한다.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될 때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반대로, 소유가 많아도 영이 잠들어 있으면 그것은 참된 복이 아니다. 재물과 안정은 영혼을 깨우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혼을 잠들게 만들기도 한다.

야곱의 인생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많은 재산을 얻었지만, 압박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평안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이름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존재의 중심이 바뀐 사건이었다. 더 이상 자신이 인생을 불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된 것이다.

나는 야곱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물어야 한다. ‘깨어 있는 자’란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다.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이다.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멀어졌고, 다윗은 넘어졌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삼손은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한 것이 비극이었다. 깨어 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다. 복 있는 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환경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고, 소유가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향해 깨어 있는 사람,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임택함 목사

:: 간증 ::

:: 참된 깨달음 ::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너무 아름다워 보인다면서 병원 이름으로 후원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그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전도에 필요한 물품을 후원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형 김치냉장고 2대를 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부할 곳을 찾고 있던,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띄게 하셔서, 전도에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우시니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지난 교회 신문(1306호/2025.5.18)에 아내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타 교단 수석 장로님을 통해 우리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총회장 목사님께서 늘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자(막10:31)'로 축복해주셨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간증을 한 바 있습니다. 늦은 만큼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겼습니다. 주일 성수,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지키며 기도부터 기초를 다져 나갔습니다. 장애인 두 분을 집에서 보살피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마25:34-40)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실천했습니다. 전도사인 아내와 함께 매주 전도도 하러 나갔습니다. 직장에서 정년퇴직한 후, 경력을 살려 일할 좋은 기회가 있었으나, 새벽 예배와 기도, 전도 시간이 매우 귀했기에 더 많은 소득을 포기했습니다.

어느 날, 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무료 급식소 근처 공원에서 어르신들에게 커피와 사랑, 교회 신문을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있는 저에게 단정한 복장의 한 남자가 접근했습니다. 그는 근처 병원의 운영을 총괄하는 원무부장이었고, 그의 아내는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습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중, 기도원 집회 때, 총회장 목사님께서 설교 중 갑자기 십일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이곳에 이 말씀을 듣고 복 받을 자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무거운 부담감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얼마 후, 담임목사님께서 주일 오후예배 때 십일조에 대한 설교를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로 불러 십일조에 대한 성경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작되었던 공무원 연금의 첫 열매와 십일조를 새 돈으로 바꾸어 봉투에 담았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마침 기도원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습니다. 첫 열매와 십일조, 감사헌금, 기도원 집회 부식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목사님께 축복기도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설렘으로 온전한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아내가 집 청소를 하던 중 낡은 시계 몇 개를 발견하고 버리려던 찰나, 1개의 시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시계는 수십 년 전 지인이 빌려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건네준 것인데, 일단 받기는 했지만 시계의 가치에 대해 무지하여 방치해 놓은 채 잊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새벽 기도하던 중, 갑자기 그 시계가 평범한 것이 아님을 직감하고, 전문가에게 문의했습니다. 그것은 유명한 명품 시계로, 금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진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는 사람들이 많은 시계인데, 단종되었기에 희소성이 더해져, 최초 판매 가격의 약 10배 비싼 시세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3:10). 오랜 세월 동안 몇 차례의 이사를 했음에도 그 시계가 버려지지 않았던 것도, 존재 자체를 잊고 있던 것을 지금 찾게 하신 것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한 장로 직분을 주신 하나님과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중심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기쁨으로 간증하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

광주예수중심교회 정아승 장로

편안하기를 포기한 삶

마흔 살이 넘어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의 일이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 공부하는 손을 놓다시피 해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개인 공간으로 분리된 조용한 독서실에 등록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스마트폰으로 이런저런 판지를 하다 집에 오기를 반복했다. 공부도 안 되는데 독서실 등록비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집 옆에 무료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을 찾았다. 칸막이도 없는 책상에 여섯 명이 다닥다닥 마주 앉아 공부하고 있었다. 고개만 들면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훤히 보이는 불편함에 그만 나갈까 싶었지만, 이왕 온 김에 한 시간이라도 하고 가자는 마음으로 책을 펼쳤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누군가 옆에서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선 지 판지도 하지 않고 오히려 공부에 집중이 너무 잘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이후로는 일부러 개방된 자리만 찾아다녔다. 물론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이 오히려 집중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공부한 끝에 결국 합격의 영광을 맛보았다. 이 일을 겪은 후 깨달은 것이 있다. 유혹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피해야 할 대상이며, 편안함을 포기해야 영광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다.

목사님은 "성공은 편안함을 포기한 자들의 몫이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며 행동으로 보여주고 계신다. 지구 반대편까지 몸을 편하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셔서, 도착 후에도 몇 시간씩 차를 타가며 강행군을 마다하지 않으신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곳의 영혼을 끝내 구원해내시는 모습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다.

내가 가장 감동 받은 것은,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편안함을 포기하며 전국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다는 점이다. 올해는 편안함을 포기하고 열심을 다해, 내가 서 있는 땅을 기름지게 해보리라 다짐해본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23:10).

송명국 집사

인천 청소년 전도집회 4월 11일(토) 오후 2시, 인천예수중심교회 대성전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사복음서 읽기

어느 날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정말 천문천답(千問千答)이 예수구나.' 그리고 단 하루라도 목사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머릿속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어떤 상황이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यो. 그러던 중 목사님께서 롤모델에 관해 설교하시며, '사복음서를 많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올해는 사복음서를 많이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짧은 끝은 시간과 정비례한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접하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요. 기존에 하던 성경 통독과 별개로, 1년 동안

안 사복음서 12독을 목표로 계산해 보니 하루에 3장 정도 읽으면 되는 분량이었습니다. 구약을 읽다가 신약을 읽으니 말씀이 술술 읽혔습니다. 분량도 많지 않아 천천히 곱씹으며 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을 뻘뻘하며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높아진 마음에 '첫째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돼라.' 하시고, 사랑이 식어진 마음에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고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 불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마음 깊은 곳을 들추고 숨은 생각과 뜻을 밝혀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씀이 양심을 찌를 때, 그 순간만큼은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다잡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요. 세상의 가르침을 좇고, 세상 것으로 만족을 얻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나는 오늘 하루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어린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다시 구합니다. 올해는 내가 서 있는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말씀한 구절이라도 실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 읽기를 통해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전소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